

미국 의회선거와 선거자금: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력

최성재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후연구원

미국 연방 의회선거에서는 현직의원이 주로 안정적인 당선률로 재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높은 재선율과 압도적 득표율에 대해 선거의 경쟁성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현직의원이 도전자에 비해 약 3~5배 정도 선거자금의 우세를 누리고 있는 선거자금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후보자간 선거비용 격차에 주목하여 현직의원과 도전자간 선거자금의 불균형이 서로간의 득표차(vote margins), 즉 선거의 경쟁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1996년부터 2002년의 상·하원 일반 선거와 공석선거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상원 및 하원선거, 그리고 공석선거 모두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비율은 후보자간 상대 득표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 현직의원과 도전자의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의 격차가 커지면 이미 도전자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현직의원의 득표율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은 감소하였다. 반면에 현직의원과 도전자간의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의 격차가 줄어들면 현직의원의 득표율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은 증가하였다. 이는 현직의원과 도전자간의 선거자금 격차가 줄어들수록 선거에서 도전자가 선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 선거비용의 득표에 대한 한계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뿐 아니라, 선거구에서 도전자 정당의 지지 기반이 강할수록, 도전자의 정치적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득표율이 낮을수록 도전자가 강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1996년부터 2002년 동시선거와 중간선거 모두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높은 인기, 경제호황, 그리고 우세한 정당일체감 등으로 현직의원의 소속 정당이 민주당인 경우 공화당인 경우보다 득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선거의 건전한 경쟁성을 제고하려면, 현직의원과 도전자의 선거비용 격차를 감소시키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중요한 사안이며, 정당의 지속적인 정치엘리트 육성 및 선거구에서의 정당지지 확보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주제어: 미국 의회선거, 정치자금, 선거경쟁성, 선거자금의 영향력

I. 서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은 정치권력의 교체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electoral 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을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미국의 연방 의회선거에서는 현직의원의 대부분이 도전자에 대해 경합 없이 많은 득표차로 당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6년 연방 하원선거에서는 출마한 현직의원의 94.5%가 재선되었으며, 1998년의 선거에서는 98.5%, 2000년 선거에서는 98.5%, 그리고 2002년 선거에서는 98%가 재선되었다.¹ 이와 같은 높은 재선을 뿐 아니라 현직의원은 득표율에서도 60%가 넘는 표를 획득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당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방 의회선거에서는 현직의원 대부분이 당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원직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Center for Democracy, 2001; Opensecrets, 2004).²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높은 재선율과 압도적 득표율에 대해 선거의 경쟁성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인지도, 지역구 관리, 정치 경력 등 현직의 다양한 이점들 중에서 선거자금의 문제가 현안과 쟁점이 되고 있다. 선거자금의 주요한 문제는 바로 현직의원과 도전자의 선거자금 격차이다. 미국 선거에서는 모금 능력에서 우세한 현직의원과 그렇지 못한 도전자간에 불균등한 자금의 모금으로 인해 현직의원이 도전자에 비해 약 3~5배 정도 선거자금의 우세를 누리고 있다. 특히

-
1. 연방 상원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1996년에는 출마한 현직의원의 91%가 재선되었으며, 1998년 선거에서는 90%, 2000년 선거에서는 79%, 그리고 2002년 선거에서는 83%가 재선되었다. 2002년 연방 하원선거에서 도전자와의 경쟁 없이 당선된 경우도 16%에 이르고 있다.
 2. 1994년의 선거에서는 출마한 현직의원의 66.8%가 60%가 넘는 안정적인 득표율로 재선되었으며, 1996년의 선거에서는 67.8%, 그리고 1998년의 선거에서는 78.4%가 안정적인 득표율로 각각 재선되었다(Center for Voting and Democracy, 2001).

선거자금의 기부를 통해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s, PACs)의 현직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도전자에 대한 현직의원의 자금력 우위를 더욱 크게 한다. 정책 광고, 여론조사 및 선거전략 등 득표에 필수적인 자원인 자금에서 현직의원이 누리는 일방적인 우세는 도전자로 하여금 높은 인지도와 무료 송달제도, 지역구 방문, 정책서비스 등을 통한 지역구의 관리, 공직의 인적, 조직자원 등의 이점을 지니는 현직의원을 상대로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불평등한 조건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자에 대한 현직의원의 현저한 자금 우세는 결국에 직접적으로는 현직의원의 재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승리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략적인 도전자의 출마를 억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Epstein and Zensky, 1995; Jacobson, 1983; 1989).

이러한 선거에서 후보자간 선거자금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선거결과에 대한 선거자금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선거자금의 격차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높은 재선율과 득표차의 원인으로서 선거자금의 불균형에 중점을 두어 현직의원과 도전자 간의 선거자금 격차가 이들 간 득표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현직의 이점을 지니는 현직의원들이 선거자금의 우세를 기반으로 도전자들에 대하여 안정적인 득표차로 쉽게 당선될 수 있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한 경쟁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직의원과 도전자 간의 득표차에 자금의 격차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선거의 공정한 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 선거자금의 영향력에 관한 선행 연구

최근의 미국 연방 의회선거에서 두드러지는 한 현상인 현직의원의 높은 재선율에 관한 연구에서 중점이 되는 이슈는 도전자와의 경쟁에서 현직의원이 쉽게 승리하는 요인들, 즉 선거결과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선거결과의 결정요인으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변수는 선거비용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은 자금 동원력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는 일반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선거결과에 대한 선거비용의 구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이콥슨(Jacobson, 1980, 1983, 1989, 1990)은 도전자의 선거비용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연방 하원선거를 대상으로 한 그의 일련의 분석들에서 밝히고 있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전자의 선거비용만이 득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뿐 현직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결과에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전자의 경우 선거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더 많은 유권자와의 접촉이 가능하고 선거구민에 대한 인지도 및 자신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반면에 현직의원은 재직기간 중의 활동으로 인하여 선거운동 이전에 이미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와 인지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린과 크레이스노(Green and Krasno, 1988, 1990)는 현직의원의 선거비용이 선거결과에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제이콥슨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들은 제이콥슨의 모델이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인 도전자의 정치적 자질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도전자의 선거비용의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력이 과대평가된 반면 현직의원의 선거비용은 그 영향력이 과소평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도전자의 정치적 자질을 모델에 포함시킨 Green and Krasno(1988)는 제이콥슨의 모델이 예상 선거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선거비용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현직의원의 선거비용의 영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편향되지 않은 선거비용의 측정을 위해서는 예상 선거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전자의 영향만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전 선거에서의 선거비용을 도구변수로 하여 2단계최소제곱추정(two-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2SLS)을 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교차효과들(interaction effects) 및 선거비용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2SLS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직의원의 선거비용이 득표에 미치는 영향력은 도전자 선거비용의 영향력만큼 의미가 있으며(회귀계수 0.036), 제이콥슨의 OLS 분석결과보다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회귀계수 0.002).

기존의 논의를 요약하면, 선거자금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는 누구의 비용이 득표에 더 결정적인 요인인가와 이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에 관한 논의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선거결과에 대한 선거비용의 영향에 관련되어서는 도전자의 선거비용만이 의미가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Abramowitz, 1988; Abramowitz and Segal, 1992; Magee, 2001; Jacobson, 1978, 1980, 1990)와 현직의원의 선거비용 역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Erikson and Palfrey, 1998; Green and Krasno, 1988, 1990; Gerber, 1998) 간의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의원과 도전자 두 후보 간에 치러지는 선거경쟁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의 선거비용이 더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논쟁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경쟁관계인 현직의원과 도전자의 선거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채 현직의원과 도전자 각자의 선거비용의 절대액수가 득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결과에 대한 선거비용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직의원과 도전자의 선거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현직의원의 선거비용에 대한 도전자 선거비용의 비율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어느 일방이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상대의 선거비용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선거구에서 현직의원 대 도전자의 선거비용의 비율로 선거비용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합하리라고 판단이 된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선거비용과 선거결과 간의 상호영향(reciprocal effects)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측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상되는 선거결과가 후보자의 선거자금 확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reen and Krsano (1988, 1990)는 도구변수를 설정하여 2SLS 분석을 한 반면, Jacobson (1980)은 OLS와 2SLS 분석을 모두 실시한 결과 상호영향이 선거비용의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왜곡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선거비용의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선거결과가 아니라 이전의 선거결과를 토대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예상되는 선거결과이다. 지어진스키와 브로(Gieryznski and breaux, 1991)는 이전 선거에서 현직 의원과 후보자의 득표차로 측정되는 예상되는 선거결과를 한 독립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선거결과에 대한 예상이 선거비용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였으며, 애플라모위쯔(Abramowitz, 1988)도 상호영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선거에서 현직의원이 획득한 득표율을 중심으로 한 Congressional Weekly Report의 선거 전망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OLS 모델을 설정하여 상호영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역시, 애플라모위쯔(Abramowitz, 1988), 지어진스키와 브로(Gieryznski and breaux, 1991), 문(Moon, 2002)의 지적대로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선거결과와의 상호영향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며, 2SLS 모델을 둘러싼 그린과 크레이스와 제이콥슨 등 학자들 간의 논란에서 보듯이 모델의 신뢰성이 확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상 선거결과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OLS 모델을 설정하였다.

III. 연구 설계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2년에 실시된 연방 상·하원선거 및 공석선거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후보자 간 선거비용의 격차가 선거의 경쟁성을 반영하는 득표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하원선거의 경우에는 2000년에 실시된 선거구 재획정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2002년 선거는 분석에서 제

외한다. 선거비용의 영향력을 적실하게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인 도전자의 정당 지지도, 도전자의 공직 경험, 예상 선거경쟁성, 현직의원 정치 경력 및 소속 정당을 기타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일반선거와 현직의 이점이 통제된 가운데 선거비용 영향력의 측정이 가능한 공석선거의 OLS 모델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다. 단, 공석 선거는 현직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관계로 현직의원의 경력, 예상 선거경쟁성, 현직의원의 소속 정당을 독립변수에서 제외한다.

1. 가설

본 연구의 주제는 미국 연방 의회선거에서 선거자금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공석 선거는 현직의원의 이전 득표율과 정치경력과 소속 정당 변수를 제외한 동일한 가설을 설정한다.³

가설: 현직의원의 선거비용과 도전자의 선거비용의 격차가 적을수록 현직 의원의 득표율에 대한 도전자의 득표율은 증가한다.

앞의 논의에서 보듯이 애플라모위쯔(Abramowitz, 1988), 제이콥슨(Jacobson, 1980, 1987, 1989), 메기(Magee, 2001)는 도전자의 선거비용이 증가할수록 도전자의 득표율이 증가한다고 주장한 반면, 그린과 크레이스노(Green and Krasno, 1988) 및 걸버(Gerber, 1998)는 도전자뿐만 아니라 현직의원도 선거비용을 더 지출할수록 득표율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

3. 공석선거의 경우 Abramowitz(1988)와 Jacobson(1980)의 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일반선거에서 도전자에 상응시키고 공화당 후보를 현직의원에 상응시키는 모델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공화당 후보가 더 많은 선거자금을 모금한다는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원용하여 공화당 후보를 일반선거에서의 현직의원에 민주당 후보를 도전자에 상응시켰다. 단, 공석선거는 상원선거의 경우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하원선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직의원과 도전자 각자의 선거비용 절대액수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현직의원에 대해 도전자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액수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는지의 여부가 득표율 차이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공석선거의 경우도 현직의원과 도전자간 선거보다 더 경쟁적이고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간의 자금격차가 적을수록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공석선거는 현직의원이 이점이 완전히 통제되기 때문에 후보 간 득표율 차이에 대한 선거자금의 영향력을 보다 더 잘 분석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정당 지지도는 많은 기존 연구에서 선거결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어 왔다. 도전자 정당의 지지도는 각 선거구에서 도전자의 정당이 유권자로부터 전통적으로 받은 지지도로 해석할 수 있다. 힌클레이(Hinckley, 1981)에 의하면 정당의 지지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에 이르러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대다수 미국 유권자가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정당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지어진스키와 브로(Gierzynski and Breaux, 1991, 1993), 터커와 웨버(Tucker and Weber, 1987), 맨과 울핑거(Mann and Wolfinger, 1980)는 그들의 연구에서 정당 지지도가 주 선거 뿐 아니라 연방 선거에서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도전자의 공직 경험(political career)은 보통 도전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정치공직(관직, 의원직, 공공위원회나 정당 활동 등)을 경험한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선거가 후보 중심으로 치러지는 경향이 강해 후보자의 정치적 역량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된다. 도전자가 공직 경험이 많은 도전자일수록 인지도, 정치적 기술, 자원의 확보라는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현직의원에 대한 자신의 경쟁성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Green and Krasno, 1988; Hinckley, 1981; Epstein and Zensky, 1995; Cox and Katz, 1996).⁴ 이러한 도전자의 공직 경험은 기존 연구에서

4. 공직이나 중요한 정치적 경험이 있는 도전자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강력한 도전자로 인식되어 정당의 독립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이나 정책광고에 의한 지원을 받기 쉽다(Herrnson, 1992: 233).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 즉, 도전자의 당선 가능성은 강력한 도전자의 출마 자체 뿐 아니라 선거모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은 도전자의 출마와 선거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거자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호효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Green and Krasno(1988, 1990), Gerber(1998)는 도구변수(instrument)를 이용하는 2SLS의 모델을 설정하였다. 논리적으로 분명한 한 가지는 현직의원과 관련한 변수들이 양 선거의 중간기간 동안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은 주로 바로 직전 선거에서 현직의원이 보인 득표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Gierzynski and Breaux,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예상 선거결과와 선거비용, 그리고 도전자의 정치적 자질 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상호 영향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전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득표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모델을 고안하였다.

재임 횟수(terms)가 많은 현직의원은 그만큼 긴 재임기간 동안 쌓인 정치 경력, 많은 선거 경험으로 정치적 조직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 높은 인지도를 지녔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제이콥슨은 재임 횟수를 잠재적인 현직의원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한 지표로 간주하였다. 즉, 다선의원에 비해 초선의원(first-term incumbents)들은 강력한 도전자들의 경쟁 목표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Jacobson, 1980: 138). 반면에 다선 의원일수록 긴 공직기간 동안 의회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고 지역 매스컴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짐으로써 현직의 이점이 보다 커진다는 것이다(Gowrisankaran et al., 2003: 1). 그러나 초선 의원일수록 재선에서 높은 득표율을 획득하는 현상(sophomore surge)을 주목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다(Alford and Hibbing, 1981; Cover and Mayhew, 1981; Epstein and Zemsky, 1995; Erikson and Thomas, 1998).⁵ 이들 연구는 현직의 효과는

5. 에릭슨(Erikson, 1998)은 그의 연구에서 재선에 임하는 초선의원(sophomore)과 베테랑 현직의원(all non-sophomore)을 구별하여 현직의원의 이점(incumbency advantage)

재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다선의원 보다 재선에 도전하는 초선의원의 득표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들(Hinckley, 1981; Mann and Wolfinger, 1980)은 미국의 선거에서 시기에 따라 특정 정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선거의 경우 대통령의 정당에 따라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경우 대통령 후보의 정당에 따라 일종의 정(正)이나 부(否)의 동반효과(coattail effect)가 있을 수 있으며, 기타 특정시기의 정치적 역학구조에 따라 한 정당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Abramson et al., 1990; Abramowitz, 1988; Moon, 2002; Tufte, 1975).⁶ 본 연구에서도 대통령의 인기에 따른 선거의 동반효과(coattail effect)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2. 분석 모델

후보자의 선거비용 격차가 득표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설정하였다.

$$Y = b_1 + \sum_{i=1}^k b_i X_i + e,$$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초선의원의 경우 선거비용이 적어도 도전자의 선거비용 정도의 효과가 있어 재선에 임하는 초선의원의 도전자에 대한 선거자금의 우세는 재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로 나타나게 된다(sophomore surge). 반면에 경력이 많은 현직의원의 경우 재선 횟수가 많아질수록 선거비용의 효과는 감소하기 때문에 도전자에 대한 선거비용의 우세가 초선의원만큼 득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6.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를 동시에 치를 경우 의회선거에서 대통령의 정당과 동일한 후보가 당선된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하여 더 많이 당선된다거나 이와 반대로 중간선거에서는 집권당의 업적에 대해 보상과 처벌의 기재가 작용하여 오히려 대통령 정당과 동일한 후보의 득표가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일반선거 모델 (Incumbent-Challenger Election Model)	공석선거 모델 (Open Seat Election Model)
<p>Y = 선거결과, 현직의원 득표율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득표율(VOTERATE);</p> <p>k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직의원 선거비용에 대한 도전자 선거비용 비율(COSTRATE) ; 2. 도전자의 정당 지지도(STRENGTH); 3. 도전자의 공직 경험(CPQ); 4. 현직의원의 정치 경력(TERMS); 5. 초선 현직의원(TERM1); 6. 예상되는 선거경쟁성(PREVOTE); 7. 현직의원의 소속 정당(PARTY); 	<p>Y= 선거결과, 공화당 후보의 득표율에 대한 민주당 후보의 상대 득표율(VOTERATE);</p> <p>k=</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화당 후보의 선거비용에 대한 민주당 후보의 선거비용 비율 (COSTRATE) 2. 민주당 후보의 정당 지지도 (STRENGTH); 3. 민주당 후보의 공직 경험(CAREER);

본 모델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검증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공선성 여부는 분산 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VIF)와 허용값(tolerance) 등의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인 경우와 허용값이 0에 가까울수록 다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김두섭, 2000: 209-234). 본 연구모델의 변수들은 상·하원선거와 공석선거 모두 분산팽창지수 값이 10 이하이고, 허용값도 최소 0.35의 안정적인 값을 보임으로써 다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부록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현직의원과 도전자 간의 경쟁인 일반선거 모델과 현직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도전자간의 경쟁인 공석선거모델의 두 회귀모델을 설정하였다.

3. 변수 및 측정

자료 출처(Data Source)

선거결과, 선거비용 및 소속 정당에 관한 자료는 Federal Election Commission(2002a; 2002b; 2002c)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였으며, 2002년 자료는 Opensecrets의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후보자의 공직 경험과 이전 득표율에 관해서는 Congressional Quarterly Weekly Report (1984~2002)의 자료와 Wheretodoresearch(2000; 2002)의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현직의원의 재임횟수는 Opensecrets(2000; 2002)와 CNN (1998)의 후보자에 관한 인상(profile) 자료를, 정당의 지지강도에 관한 자료는 Fairvote(2002)의 인터넷 자료와 Congressional Quarterly Weekly Report (1986~2002)를 이용하였다. 1996년에서 2000년까지의 연방 하원선거의 총 관찰 수는 885개, 공석선거(open seat elections)는 114개로 나타났으며, 1996년에서 2002년까지의 연방 상원선거의 총 관찰 수는 94개로 나타났다.

종속변수(Endogenous Variable)

종속변수는 연방선거에서 두 후보자간의 선거결과(VOTERATE)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결과를 후보자간의 상대적 득표율, 즉 $\{(도전자득표율/현직의원득표율)*100\}$ 으로 측정한다. 공석선거의 경우는 $\{(민주당득표율/공화당득표율)*100\}$ 으로 측정한다. 이는 두 후보자의 득표율 차이(vote margins)를 반영하는 것이다.

독립변수(Exogenous Variables)

(1)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Campaign Spending Rate, COSTRATE)

선거비용은 현직의원의 선거비용에 대한 도전자의 선거비용의 비율로 측정되며, 공석선거의 경우는 두 후보간의 선거비용 비율로 측정된다. 이는 후보자간의 상대적 선거비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후보자간의 선거비용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산포도(scatter diagram)를 이용하여, 후보자간 선거비용의 비율과 상대 득표율 간의 상관관계를 예비 진단한 결과, 둘의 관계는 선형(linear)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 이르면 추가된 선거비용 비율의 가치가 감소(diminishing marginal returns)하는 비선형(nonlinear)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다(부록 2 참조).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선거비용의 비율을 제곱근의 형태로 변환(square root transformation)하였다. 따라서 일반선거 모델에서 상대적 선거비용의 비율은 $\{(도전자선거비용/현직의원선거비용)*100\}^{\frac{1}{2}}$ 로 측정되며, 공석선거 모델에서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도 $\{(민주당후보선거비용/공화당후보선거비$

용)*100}½의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된다.

(2) 도전자 및 공석선거 민주당 후보의 정당 지지도(Challengers Party Strength, STRENGTH)

본 연구에서는 도전자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전통적인 지지도를 지난 2번의 선거에서 도전자 정당이 승리한 횟수로 측정한다. 도전자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승리한 횟수에 따라 0, 1, 2의 척도로 나누어 측정하며, 공석선거의 경우도 민주당 후보의 정당 지지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한다.

(3) 도전자 및 공석선거 후보의 공직 경험(Challenger's Political Career, CPQ)

비안코(Bianco, 1984), 제이콥슨(Jacobson, 1989, 1980), 문(Moon, 2002) 등은 도전자의 정치적 자질을 의원이나 정부 관료와 같은 선거를 통한 공직 경험의 유무에 따라 공직 경험이 없는 경우를 0, 경험이 있는 경우를 1로 구분하여 단순 이분법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공석선거는 민주당의 공직 경험뿐 아니라 경쟁하는 두 후보의 공직 경험 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 Aramowitz (1988)의 지표를 원용하여 두 후보의 공직 경험 차이를 측정한다. 따라서 두 후보의 공직 경험의 차이에 따라 -1, 0, 1의 척도로 구분한다.

(4) 예상되는 선거경쟁성(Expected Electoral Competition, PREVOTE)

예상되는 선거경쟁성은 직전 선거에서의 현직의원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원용하여 측정이 어려운 여러 특성을 지닌 현직의원의 강렬함 정도를 반영해줌으로써 직전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득표율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을 예상 선거경쟁성의 지표로 삼는다.

(5) 현직의원의 정치 경력(TERMS)

현직의원의 정치 경력은 재임 횟수로 측정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 경력에 따른 득표율의 증가를 측정하기 위해 Jacobson(1980)의 연구처럼 재임기간을 반영하는 재임 횟수를 지표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Alford and Hibbing, 1981; Erikson and Palfrey, 2000)에서 중점을 둔 초선의원(freshmen)의 선전 여부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에릭슨과 팔프레이(Erikson and Palfrey, 2000)의 분석을 원용하여 초선의원을 1로, 2선 이상의

다선의원을 0으로 구분하여, 도전자가 경쟁하는 현직의원이 초선과 다선인 경우에 따라 상대 득표율에서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6) 현직의원의 소속 정당(Incumbent's Party, PARTY)

현직의원의 소속 정당은 기존 연구에서의 논의대로 대통령 선거의 동반효과 혹은 중간선거에서의 대통령 인기나 경제상황에 따른 처벌투표에 의해 현직의원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직의원의 소속 정당이 대통령 정당과의 동일성 여부가 득표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현직의원의 정당이 대통령의 정당과 동일한 경우 1, 다른 경우 0으로 한다.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선거비용 격차가 득표차에 미치는 영향력

본 연구는 하원선거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격차를 반영하는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이 득표차를 가늠하는 상대적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석선거는 현직의원의 이점을 통제한 가운데 선거비용 격차의 영향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표 4.1>에서 현직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공석선거의 분석 결과를 보면, 공화당 후보의 선거비용에 대해 민주당 후보의 선거비용 비율이 1%를 증가하면 득표율은 $3.25\%(=1^{1/2} * 3.25)$, 10% 증가하면 $10.28\%(=10^{1/2} * 3.25)$, 50% 증가하면 $22.98\%(=50^{1/2} * 3.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두 후보가 선거비용의 격차를 줄일수록 이들 간에 득표율 차이는 감소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직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도전자 간의 경쟁에서 자금의 영향력은 득표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공석선거는 현직의원을 상대로 하는 선거에 비해 민주당이나 공화당 후보 모두에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좋은 기회로 인식된다. 때문에 공석선거에서는 선거비용의 효과를 잘 아는 후보자들이 많은 득표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적으

<표 4.1> 선거비용 격차의 영향력 측정 결과

	하원선거		상원선거
	일반선거	공석선거	
현직의원 대비 도전자의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	3.37*** ^b	3.25***	4.61***
도전자의 정당지지도	4.12**	11.34**	7.36**
도전자의 공직 경험	4.32***	17.14**	0.15
예상 선거경쟁성	0.44***		0.25**
현직의원 정치경력	0.07		-1.56
초선 현직의원	-2.17		-1.74
현직의원 소속 정당	-5.92***		2.31
	N=885 R ² =.64	N=114 R ² =.65	N=94 R ² =.57

- a. 종속변수는 현직의원 대비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
b. *p < .10, **p < .05, ***p < .01.

로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일반선거와 달리 후보자간 평균 선거자금의 격차가 매우 근소하다. 후보들의 많은 선거비용과 근소한 자금의 격차는 선거기간 동안 직접메일, 마스크 등을 통한 홍보에 투입되어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도를 높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쟁적인 선거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하원선거에서 득표차에 대한 선거비용 격차의 영향력 측정 결과에 의하면, 현직의원의 선거비용에 대한 도전자의 선거비용 비율이 1% 증가하면 현직의원 대비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은 3.37%(=1^{1/2}*3.37), 10% 증가하면 득표율은 10.66%(=10^{1/2}*3.37), 50% 증가하면 23.83%(=50^{1/2}*3.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하원선거에서 득표차에 대한 선거비용 격차의 영향력은 현직효과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직의 이점이 완전히 통제된 공석선거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직의원과의 경쟁에서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금의 영향력을 현직의 이점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영향력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다양한 현직의 이점을 지닌 경쟁하는 현직의원을 상대로 도전자의 상대적인 선거비용의 증가가 현직의원과의 득표율 차이의 감소와 승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 득표율에 대한 상대적 선거비용의 영향은 그 크기가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의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도전자가 선거비용의 지출을 증가하면 현직의원에 대한 자신

의 경쟁성을 증가할 수 있으나 경쟁성에 대한 선거비용 지출의 한계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현직의원과 도전자가 비슷한 수준의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에 선거비용의 한계효과는 감소하고 도전자의 정치적 자질 등과 같은 다른 변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상원선거에서도 선거비용 격차의 영향력은 하원선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원선거에서 현직의원에 대한 도전자의 선거비용 비율은 회귀계수가 4.61로, 이는 현직의원에 대해 도전자가 선거비용 1%를 증가하면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이 4.61%($=1^{1/2} * 4.61$), 10% 증가하면 득표율은 14.58%($=10^{1/2} * 4.61$), 50% 증가하면 34.60%($=50^{1/2} * 4.61$) 증가함을 의미한다. 현직의원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원선거에서 도전자의 상대적 선거비용 증가는 유권자의 지지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득표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반면에 현직의원과 도전자 간에 선거자금 격차가 클 경우에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도전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득표율 차이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때문에 상원선거에서 선거비용의 격차 변수는 하원선거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원선거에서는 현직의원 대비 도전자의 선거비용과 정당 지지도, 예상 선거경쟁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임으로써 현직의원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⁷

선거비용 격차가 줄어들수록 경쟁적인 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승리한 현직의원의 득표율이 60% 이상인 비경쟁적인 선거와 60% 이하인 경쟁적인 선거 그리고 도전자가 승리한 선거에서 현직의원과 도전자 간 자금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4.2>에 나타난 선거의 경쟁성에 따른 현직의원과 도전자 간 선거자금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 현직의원의 득표율이 60% 이상인 비경쟁적인 선거의

7. 선거비용 격차의 중요성은 연도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1996년에 회귀계수는 3.59, 1998년에는 3.15 그리고 2000년에는 2.89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1996년과 2000년의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on year election)와 중간선거(off year election)간에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시기별로 후보자간 선거비용 격차의 중요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매 선거마다 선거자금의 격차는 현직의원에 대해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우 도전자가 현직의원 선거비용의 약 17% 정도만 지출하고 있어 그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상원선거에서도 현직의원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은 15%에 불과해 자금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경쟁적인 선거의 경우, 현직의원 대비 도전자의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이 하원선거에서 58%이고, 상원선거에서 56%로 비경쟁적인 선거에 비해 선거비용 격차가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도전자가 승리한 경우, 상·하원선거에서 현직의원과 도전자의 평균 선거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직의원에 대한 도전자의 평균적인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이 하원선거에서 104%, 상원선거에서 103%로 도전자가 현직의원을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쟁성에 따른 선거비용 격차를 비교해 보면, 현직의원과 도전자 간 득표차가 적은 경쟁적인 선거일수록 이들 간의 선거비용 격차 역시 적으며 도전자가 승리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도전자가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선거의 경쟁성에 따른 선거자금 격차 비교

	하원선거			상원선거		
	현직의원 승리(N=853)		도전자 승리(N=32)	현직의원 승리(N=83)		도전자 승리(N=11)
	득표율 ≥60%	득표율 <60%		득표율 ≥ 60%	득표율 < 60%	
평균(Mean): 상대득표율, %	43	77	114	46	81	107
현직의원 선거비용, \$	621,625	1,088,858	1,372,850	4,378,973	7,257,746	10,871,417
도전자 선거비용, \$	108,040	605,558	1,258,094	543,644	3,406,838	9,629,927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 %	17	58	104	15	56	103

그렇다면, 도전자가 현직의원을 상대로 승리하는데 있어서도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의 증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현직의원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이 증가할수록 상대 득표율이 증가하는 것은 판명되었지만, 도전자가 승리한 경우에는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보다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하원선거를 대상으로 도전자가 승리한 경우만을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4.3〉 도전자가 승리한 하원선거에서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의 영향

변수	회귀계수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	2.62**
도전자의 정당지지도	-2.12
도전자의 공직 경험	5.48
예상 선거경쟁성	-0.06
현직의원 정치경력	-0.53
초선 현직의원	9.16
현직의원 소속 정당	-6.89
N=32 R ² =.32	

a. 종속변수와 p 값은 〈표 4.1〉과 동일

위의 〈표 4.3〉에 나타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도전자가 승리한 선거에서도 현직의원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은 상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판명되었다. 즉,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의 영향력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2.62이나 되었다. 이는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의 증가가 경쟁적인 선거는 물론 승리에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리 도전자가 능력 있고 강력하더라도 이는 유권자에게 알려질 경우에 표로 전환될 수 있다. 현직의원의 약점과 자신의 능력을 유권자에게 인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자원이 바로 자금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금은 선거에서 선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거비용의 상대적 비율이 다른 독립변수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상대 득표율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보다 확연히 알 수 있다. 표준 회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의 비교를 통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표 4.4〉에서 보듯이 하원선거에서 후보자간 선거자금의 상대적 비율 변수는 정당 지지도나 공직 경험, 예상 선거경쟁성, 현직의원의 소속 정당 등의 여타 다른 독립변수들보다 후보자간 상대 득표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예상 선거경쟁성, 현직의원의 소속 정당, 도전자의 공직 경험, 정당 지지도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상 선거경쟁성의 영향력은 상대적 선거자금 비율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보다 득표차에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직의원의 강력함 여부가 현 선거에서 후보자간 상대 득표율에 중요한 영향

<표 4.4>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과 기타 독립변수 간의 영향력 비교^a

변수	하원선거	상원선거	공석선거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Estimate)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	0.47***	0.61***	0.71***
도전자의 정당 지지도	0.06**	0.18**	0.12**
도전자의 공직 경험	0.09***	0.003**	0.13**
예상 선거경쟁성	0.42***	0.18	
현직의원 정치경력	0.01	-0.08	
초선 현직의원	-0.04	-0.03	
현직의원 소속 정당	-0.13**	0.04	

a. 종속변수와 p 값은 <표 4.1>과 동일

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원선거에서 역시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은 다른 변수들보다 득표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예상 선거경쟁성과 도전자의 정당 지지도가 득표차에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상원선거에서는 하원선거보다 현직의원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예상 선거경쟁성의 영향력이 다소 적게 나타난 반면에 정당 지지도의 영향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원선거에서 투표의 기준으로서 현직 요인보다 정당 지지도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직 경험 역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원선거의 경우 도전자의 대부분이 공직 경험을 지닌 경우가 많고 공직 경험이 없더라도 재정적 능력과 유명세를 지닌 도전자가 출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전자의 공직 경험 여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석선거에서는 현직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관계로 상대적 선거비용 비율의 영향력은 다른 변수들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직 경험과 정당 지지도는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본 연구가 함의하는 바는 경쟁하는 쌍방의 선거비용 격차가 커지면 이미 도전자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현직의원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현직의원에 대해 도전자가 선거비용을 증가하여 그 격차를 줄이면 현직의원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이 증가하는 경쟁적인 선거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우세는 재정적 우위에 있는

현직의원이 선거 홍보와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자금이 부족한 도전자가 유권자에게 인지되기 어려운데서 기인되는 바가 크다.⁸ 그러나 현직의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도전자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현직의원을 상대로 약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자신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약을 홍보하는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Jacobson, 1987).

이상에서 하원선거에서 어느 일방의 절대 선거비용의 액수보다 경쟁하는 현직의원과 도전자 간의 선거비용의 격차가 득표율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이미 여러 이점을 지니고 있는 현직의원의 우세를 극복하여 공정한 조건에서의 선거경쟁(fair competition)을 위해서는 현직의원과 도전자 간의 선거비용 격차의 감소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2. 기타 독립변수들이 득표차에 미치는 영향력

하원선거에서 도전자 정당에 대한 지지도의 회귀계수는 4.12로,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지난 2번의 선거에서 도전자의 정당이 한번 승리했을 경우 한번도 이기지 못한 경우에 비해 동 정당소속의 도전자가 선거에서 약 4.12%의 상대 득표율을 신장함을 의미한다. 이는 현직의원의 득표율이 50%대인 경합 상황에서는 도전자의 승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치이다. 상원선거의 경우에는 도전자 정당에 대한 지지도의 회귀계수가 7.36이고, 공식선거의 경우에는 11.34로, 현직의원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상원선거는 하원선거보다 정당 지지도의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의 이점이 덜한 상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상원의원이나 도전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다른 조건이 비슷할 경우

8. 1980년에 National Election Study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하원선거에서는 현직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및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반면 도전자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유권자의 92%가 현직의원의 이름을 인지도한 반면에 도전자의 이름을 인지도한 유권자는 그 절반인 54%에 불과했다(Abramowitz, 1980; Jacobson, 1983).

현직자 요인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상원선거뿐 아니라 현직의원의 이점이 통제된 공석선거의 개별 선거구에서 역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득표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난 선거에서 도전자 정당의 승리 횟수가 많다는 것은 동 선거구에서 도전자 정당에 대한 강한 지지도를 반영한다. 때문에 도전자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난 선거에서 자신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강했던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에서 당선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후보자의 공직 경험을 상정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도전자의 공직 경험의 영향력을 보면 회귀계수가 4.32로 도전자가 공직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도전자보다 4.32%의 상대 득표율을 신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공직 경험은 공석선거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공직 경험을 경쟁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의 공직 경험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 후보만 공직 경험이 있는 경우가 두 후보 모두 공직 경험이 없거나 있는 경우, 그리고 공화당 후보만 공직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공화당 후보의 득표율에 대한 민주당 후보의 상대 득표율을 17.14%나 신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후보자의 공직 경험은 상대 득표율의 증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직효과가 부재한 공석선거에서는 도전자의 정치적 능력을 반영하는 공직 경험이 유권자의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원선거, 공석선거와 달리 상원선거의 경우는 도전자의 정치적 자질이 상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의 값이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선거에서 예상되는 선거경쟁성의 회귀계수는 0.44로, 이는 직전선거에서 현직의원 대비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이 1% 증가하면 현 선거에서는 0.44%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원선거에서 동 변수의 회귀계수는 0.25로, 이는 직전선거에서 현직의원 대비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이 1% 증가하면 현 선거에서는 0.25%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의하면, 직전 선거에서 안정적인 득표를 한 현직의원일수록 탄탄한 지지기반과 충분한 자금

력을 지닌 강력한 후보임을 반영하며 현 선거에서도 도전자에 비해 많은 득표차로 쉽게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예상한 바대로 직전 선거에서 큰 득표차로 당선된 현직의원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도전자들이 동 선거구에서의 출마를 회피하거나 당선에의 강력한 의지 없이 기타 정치적 목적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반영한다고 해석된다. 결국, 직전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득표차가 적을수록 충분한 자금력과 공식 경력이 있는 유능한 도전자가 출마하는 경향이 있고, 이들이 선거에서 강력한 선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현직의원에 대해 경쟁적인 선거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직의원의 재임 횟수와 초선의원 여부가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하원선거와 상원선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의원의 재임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현직의원이 초선의원인 경우에 현직의원의 득표율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이 감소한다는 가설은 검증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현직의원의 소속 정당이 대통령 정당과 동일한 경우 현직의원의 득표율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간선거와 동시선거를 고려하여 연도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1996년과 1998년의 선거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현직의원의 정당이 대통령 정당과 동일한 민주당인 경우 다른 소속 정당인 경우보다 현직의원에 대한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이 15.64%, 5.68%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0년 선거에서는 현직의원의 정당이 당시 당선된 대통령 정당과 동일한 소속의 공화당인 경우 다른 소속 현직의원보다 도전자의 상대 득표율이 4.25% 더 증가함으로써 공화당 소속의 현직의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 하원선거에서 도전자 소속 정당의 상대 득표율에 대한 영향, 1996-2000

	1996	1998	2000
회귀계수	-15.64	-5.68	4.25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분석기간 동안 민주당 소속의 현직의원이 유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주당 집권기간 동안의 경제적 호황과 클린턴 대통령의 높은 인기, 1994년 깅그리치의 인기도에 힘입어 의회에 대거 진출한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그리고 유권자의 민주당 정당에 대한 지지도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민주당 현직의원의 선전은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60%가 넘는 지지율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제이콥슨(Jacobson, 1989)과 터프트(Tufte, 1978) 등의 기존 학자들은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경제 상황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들고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와 경기 호황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1996년의 동시선거는 물론 1998년의 중간선거와 2000년 선거에서 동일 정당 현직의원의 선전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시선거에서 편승효과와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의 고전 여부는 그 당시의 경제상황과 더불어 대통령의 인기도, 정당의 일체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 기간 동안 하원선거에서 민주당 현직의원의 선전은 집권당 대통령의 높은 인기도 및 정치, 경제적 환경과 정당일체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V. 결론

이상에서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방 의회선거를 대상으로 후보자간 선거자금 격차에 중점을 두어 득표차에 대한 선거자금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현직효과가 없는 공식선거뿐 아니라 현직의원이 출마한 일반선거에서도 도전자의 현직의원에 대한 상대적인 득표율은 도전자 선거비용의 현직의원 선거비용에 대한 상대적 비율에 영향을 받았다. 즉, 현직의원의 선거비용에 대한 도전자의 선거비용 비율이 증가할수록 도전자가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 한계효과는 점차 감소하였다.

둘째, 지난 선거에서 도전자이 정당이 당선자를 많이 배출할수록 현재의 선거에서 현직의원과 도전자 간에 근소한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로, 도전자의 정치적 자질로서 공직 경험은 도전자의 선거 경쟁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넷째로, 이전 선거에서 현직의원이 많은 득표차를 기록할수록 상대 득표율로 나타난 도전자의 경쟁성은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현직의원과 동일한 소속 정당의 대통령 인기가 높고 정치⁹, 경제적 상황이 이들에 유리할 경우 동반선거와 중간선거에서 편차는 있을지라도 대체로 다른 정당 소속 현직의원보다 선거에서 선전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미국 선거에서 지속되고 있는 현직의원의 높은 재선율과 안정적인 득표율은 이미 여러 면에서 이점을 지닌 현직의원을 상대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불균등한 자금에서 기인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도전자가 현직의원과 비슷한 수준 혹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경쟁적인 선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전자의 승리도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일방적인 우세가 재정적 불균등한 조건에서 상당 부분 기인된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한 경쟁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시켜 주는 선거의 경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도전자의 재정적 열세를 보완해주고 현직의원과 도전자의 선거비용 격차를 감소시키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에 개정된 ‘초당적 선거개혁법(The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은 소프트 머니의 금지와 개인의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기부금 한도를 현 규정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법은 지출한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력에서 3~4배 정도 우위를 지니는 현직의원의 도전자에 대한 재정적 우세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보다 경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금 및 지출한도규제, 국고보조제도, 정책홍보 비용의 공영화 등과 같은 현직의원과 도전자 간 선거자금의 격차를 보완해줄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정당의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정치 엘리트 후보들의 지속적인 육성과 평상시에도 선거구에서 정당 지지도의 확보 노력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정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최근

9. 9.11 테러 이후 2002년 선거에서 두드러진 공화당 현직의원의 선전에서 보듯이 특수한 정치적 상황 역시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선거에서 집권당 현직의원의 선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에 주 차원에서는 선거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명선거체계’(Clean Elections System)의 정책적 시도가 잇달아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선거자금 제도의 개혁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 노력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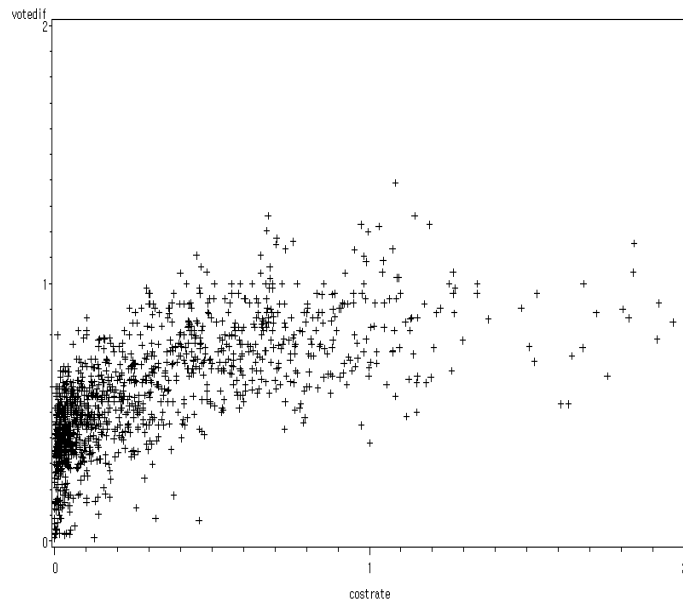
부록

1. 독립변수들의 허용값(tolerance)과 분산팽창값(variance inflation)

연방 하원선거			연방 상원선거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s)	허용값 (tolerance)	분산팽창값 (variance inflation)	독립변수	허용값 (tolerance)	분산팽창값 (variance inflation)
COSTRATE	0.77195	1.29543	COSTRATE	0.80235	1.24634
STRENGTH	0.54998	1.81824	STRENGTH	0.87574	1.14189
CHCAREER	0.87800	1.13895	CHCAREER	0.84845	1.17862
PREVOTE	0.66119	1.51243	PREVOTE	0.78463	1.27449
PARTY	0.94822	1.05461	PARTY	0.91527	1.09257
TERM	0.71814	1.39249	TERM	0.38226	2.61602
TERM1	0.49791	2.00838	TERM	0.35751	2.79945

공석선거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s)	허용값 (tolerance)	분산 팽창값 (variance inflation)
COSTRATE	0.83552	1.19686
STRENGTH	0.85706	1.16678
CAREER	0.88300	1.13251

2. 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비율과 상대 득표율의 산포도



참고문헌

김두섭. 2000. 『화귀분석』. 서울: 나남.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and David W. Rohde. 1990.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1988 Election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Abramowitz, Alan I. 1980. "A Comparison of Voting for U.S. Senator and Representative in 1978."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3). pp. 633-640.

Abramowitz, Alan I. 1988. "Explaining Senate Election Outco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2). pp. 385-403.

Abramowitz I. Alan and Jeffrey Allan Segal. 1992. *Senate Elections*.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lford, John R. and John R. Hibbing. 1981. "Increased Incumbency Advantage in the House." *Journal of Politics* 43(4). pp. 1042-1061.

Ansolabehere, Stephen, and Alan Gerber. 1994. "The Mismeasure of Campaign Spending: Evidence from the 1990 U.S. House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56(4). pp. 1106-18.

Bianco, William T. 1984. "Strategic Decisions on Candidacy in U.S. Congressional District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9(2). pp. 351-364.

- Congressional Quarterly Weekly Report. 1984~2002.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Center for Democracy. 2001. "General Electio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54~1996." www.fairvote.org/reports/monopoly/genelect.html.
- CNN. 1988. "Election 98 Candidates." www.cnn.com/ELECTION/1998/atatea/AZ/H/01/david.mendoza.html.
- Common Cause. 2000. "Incumbents Enjoy Huge Fundraising Advantage." Hoover Institution. www.campaignfinancesite.org/giving/following2.html.
- Common Cause. 2002. "Election 2002-Incumbent Advantage: 98Percent in House, 24 of 29 in Senate Win Reelection." www.commoncause.org/news/default.cfm?ArtId=38.
- Cover, Albert D and David Mayhew. 1981. "Congressional Dynamics and the Decline of Competitive Congressional Elections." in Lawrence C. Dodd and Bruce I. Oppenheimer, (eds.). *Congressional Reconsider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Cox, Gary W. and Johathan N. Katz. 1996. "Why Di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House Elections Grow?"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2). pp. 478-497.
- Epstein, David and Peter Zensky. 1995. "Money Talks: deterring Quality Challengers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pp. 295-307.
- Erikson, Robert S. and Thomas R. Parfrey. 1998. "Campaign Spending and Incumbency: An Alternative Simultaneous Equations Approach." *Journal of Politics* 60(2).pp.355-397.
- Erickson, Stephen C.1994. "The Entrenching of Incumbency: Reelection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790-1994." *The Cato Journal* 14(3).
- Fairvote. 2002. "Winning Party and %, and Officeholder U.S. House, 1992~2000." www.fairvote.org/2002/rawdata.slx.
-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02a. "1996 House Campaign Summaries- Candidates Listed by State and District." www.fec.gov/finance/states.htm.
-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02b. "1998 House Campaign Summaries- Candidates Listed by State and District." www.fec.gov/finance/state97.htm.
-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02c. "2000 House Campaign Summaries - Candidates Listed by State and District." www.fec.gov/2000/rtate99.htm.
- Gerber, Alan. 1998. "Estimating the Effect of Campaign Spending on Senate Election Outcomes Using Instrumental Variabl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2). pp. 401-411.
- Gierzynski, Anthony and David Breaux. 1991. "Money and Votes in Stat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6(2). pp. 203-217.
- Gierzynski, Anthony and David Breaux. 1993. "Money and Party Vote in State House

-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8(3). pp. 515-533.
- Gowrisankaran, Gautam, Matthew F. Mitchell and Andrea Moro. 2003. “Why Do Incumbent Senators Win? Evidence from a Dynamic Selection Model.” www.econ.umn.edu/~amoro/talks/smallseminar.pdf.
- Green, Donald P. and Jonathan S. Krasno. 1988. “Salvation for the Spendthrift Incumbent: Reestimating the Effects of Campaign Spending in the House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4). pp. 866-884.
- Green, Donald P. and Jonathan S. Krasno. 1990. “Rebuttal to Jacobson's new Evidence for Old Argu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2). pp. 363-372.
- Hinckley, Barbara. 1981. *Congressional Elections*. Washington D.C.: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Jacobson, Gary C. 1980. *Money in the Congressional Election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Jacobson, Gary C. 1983. *The Politics of Congressional Election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Jacobson, Gary C. 1984. “Money in the 1980 and 1982 Congressional Elections.” in Michael Malbin, ed. *Money and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Financing Elections in the 1980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Jacobson, Gary C. 1987. “Money and competition in the House Elections.” in Key Lehman Schlozman, (ed). *Elections In the America*. Boston: Allen & Unwin, INC.
- Jacobson, Gary C. 1989. “Strategic Politicians and The Dynamics of U.S. House Elections, 1946~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3). pp. 773-793.
- Jacobson, Gary C. 1990. “The Effects of Campaign Spending in House Elections: New Evidence for Old Argu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2). pp. 334-362.
- Magee, Christopher. 2001. “Campaign Contributions, Policy Decisions, and Election Outcomes—A study of the Effects of Campaign Finance Reform.” *Public Policy Brief*. 64. Levy Institute.
- Mannand, Thomas E. and Raymond E. Wolfinger. 1980. “Candidates and Parties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1). pp. 617-632.
- Moncrief, Gary and Joel A. Thompson. 1998. “Campaign Spending in state Legislative Contests 1986~1994.” Citizen's Research Found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ww.igs.berkeley.edu:8880/CRF/RS/moncri.htm.
- Moon, Woojin. 2002. “The Paradox of Less Efficient Incumbent Spending Theory and Test.” weber.ucsd.edu/~wmoon/spending.PDF.
- Opensecrets. 2000. “Congressional Races in 2000.” www.opensecrets.org/states/election.asp?state=AL&Year=2000.

- Opensecrets. 2002. "Congressional Races in 2002" www.opensecrets.org/bigpicture/election.asp?state=Al&Year=2002.
- Opensecrets. 2004. "Reelection Rates Over the Year." www.opensecrets.org/bigpicture/reelect.asp?cycle=2004.
- Squire, Perill. 1992. "Challenger Quality and Voting Behavior in U.S. Senat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7(2). pp. 247-263.
- Tufte, Edward R. 1975. "Determinants of the Outcome of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3). pp. 812-826.
- Tucker, Harvey J. and Ronald E. Weber. 1987. "State Legislative Election Outcomes: Contextual Effects and Legislative Performance Effect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2(4). pp. 537-553.
- Wheretodoresearch. 2000. "Congressional Candidates in 2000 Election." www.wheretodoresearch.com/house_candidates.htm.
- Wheretodoresearch. 2002. "Congressional Candidates in 2000 Election." www.wheretodoresearch.com/c2.htm.

U.S. Congressional Election and Campaign Finance: The Effect on Electoral Outcome

Choi Sung-jae

Post Doc.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Ewha Women's University

In the US congress elections, the tendency has been that the over 90% of the incumbents are re-elected with higher vote margins. There are worries that the electoral fair competition has been weakened. This study focused on the wide gap of campaign costs among candidates and thereby, analyzed the effects of such a gap on vote margins, competitiveness of election. The data from the congressional elections from 1996 through 2002 were processed wit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dvantage of campaign costs had significantly affected the vote margins. Namely, if the other conditions remained the same, a wide gap of campaign costs between incumbents and their challengers acted to further increase the vote margins for the former group who were already positioned favorably in the election. Such findings suggest that the narrower the gap

of campaign costs, the easier it is for the challengers to be in a much more favorable position to compete with the incumbents. In addition, the stronger the base of challengers' political parties, the more experienced they were politically, and the lower the incumbent's vote margins in the preceding elections, the challengers tended to be more favorably positioned in the current elections. Lastly, the democratic incumbents were more favorable in their vote margins owing to President Clinton's high popularity, economic boom and solidarity of Democratic Party. After all, in order to enhance the spiri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improve a fair competition of election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ampaign finance system so that the gap of campaign costs between incumbents and challengers can be narrowed and challengers are able to compete against incumbents under fair conditions.

Key Words: U.S. Congress Elections, Electoral Competition, Campaign Money,
The Effect of Campaign Finance